



백장미 청년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 7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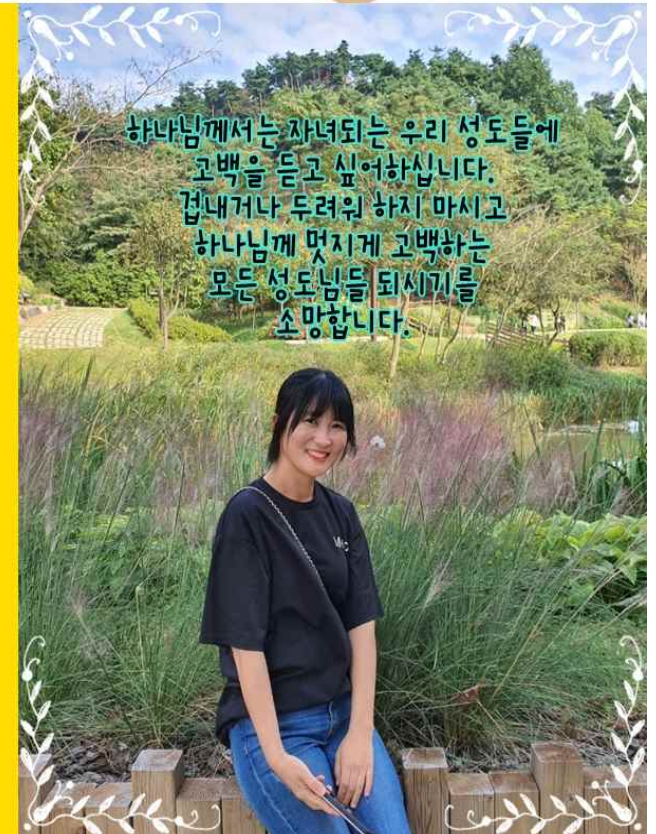
NEW
순복음Life
제67호

발행일 : 2021.11.1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Happy
ThaNsGivINg

전
수
현
집
사
님



할렐루야! 라이프지 1호 간증 이후 5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음 달 간증 주인공은 누구로 할지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았지만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꽃히는 분이 종종 계셨거든요. 문득 주님께서 내 간증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중 한 가지를 쓰려고 합니다. 제 간증의 제목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보건위원회 사역을 하면서 소독을 할 때마다 필경대를 닦게 되는데 그때마다 세월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패이고 굵히고... 이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구나. 이걸 헌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구역장님과 상의해서 필경대를 구입했습니다. 필경대가 도착을 하고 받아 보았는데 마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나 잘못이라도 했는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교회에 필경대가 너무 낡아서 내가 그걸 헌물하고 싶다고 용기내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는 달리 남편이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너무나 감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뜻과 남편의 뜻이 같음을 보시고 부부가 같이 주님께 감사로 헌물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섰던 저는 남편이 당연히 싫어할 줄만 알았던 것이구요. 남편의 은혜로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급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매매가 좀처럼 잘 되지 않고 매매가 되더라도 싸게 내 놓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 후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배짱을 부려서 더 높은 금액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또 다음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전세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에게 당신의 그 입술에 고백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집이 팔린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라는 주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손경민_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땅아 두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4편 19절



13. 25살 이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 2가지 말씀해주세요.

25살이 되려면 21년도를 빼고 3년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한 직장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며 일하는 데에 있어 즐거운 일이면 더 바랄게 없겠네요.

두 번째는 제가 골프 치는걸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해서 25살 전에는 꼭 제가 입고 싶은 골프웨어 입고 필드 나가서 공을 꼭 치고 싶습니다 ~

14. 토요일에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그만 졸음이 몰려오고 말았어요. 졸음을 무찌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만의 필살기 알려주세요.

저는 말씀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ㄱ' 만약 졸음이 온다 하면 손 끝을 손톱으로 꾸욱 누릅니다. 제가 손톱이 조금 길거든요. 아파서 오던 졸음도 다시 날아가 버리죠 ~

15. 백장미 세글자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백 : 백번을 부르고 천번을 불러도 응답해주실 주님을 믿고

장 : 장미야

미 : 미숙하지만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주님 그늘 안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16. 자신을 자랑해 주세요.

주변에서 늘 예쁨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미랍니다 ♥

17. 성도님께서 잠깐이지만 골프장에서 전문인으로서 일한 사회경험이 있으신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님께 무슨 깨달음을 주셨나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저에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 주셨어요.

성도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알아보기

백장미 청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순복음교회 밀알 청년회 백장미 청년이라고 합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8월달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21년도 6개월을 골프 캐디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내년에 다시 대학교에 복학할 준비를 하며, 열심히 쉬고 놀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중입니다.

3. 오늘 성도님에게 일어난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건 매일매일이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집 밖에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또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언니 오빠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4. 성도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도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 꿈은 생각만해도 행복하네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십일조도 많이 드리고 싶고 어려운 교회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저희 가족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호강도 시켜주고 싶고요. 저도 좋아하는 직장 가져서 웃으며 신나게 신앙 안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게 꿈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너무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었나요 ~ㅜ..? 그래도 제가 늘 꿈꿔왔던 것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 기도도 하고 말은 사역, 또 주신 믿음 잘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연히 없으면 안되시는 분이죠.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 할 때에도 제 옆에 계시는 주님, 늘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 없이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주일에 찬양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에 대한 성도님의 다짐, 생각 등이 궁금해요.

주일 찬양단~ 이 사역은 정말 저한테는 주님과의 생명의 끈이랄까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때 찬양단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 이 라이프지의 성도 알아가기를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고,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찬양단에 선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때로 성도님들께서 저를 통해 은혜 받는다고 말씀해주실 때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합니다. 저에 목소리가 안나올때까지 찬양사역 하고 싶구요. 주님과 한 약속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7. 21년 인생 중 제일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였나요?

제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아직 신앙의 그릇이 작다보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 다. 딱 언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런 상황들이 겹칠 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8. 성도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아빠는 그 어떤 분 보다 자랑스럽고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시구요. 저랑 둘이 데이트도 좋아하시고 뽀뽀 해 주는 것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같이 골프 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 속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손 꼭 잡고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조언도 항상 해주시는 친구같은 아빠입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일만 남았어요 저희 아빠~ 저희 엄마 이 영주 집사님은요! 일단 엄청엄청 예리세요. 울음도 많으셔서 제가 걱정 안하는 날이 없어요..ㅜ.. 저는 엄마가 예전부터 운동도 좋아하고 어디가서 나 씩씩하셔서 강한 엄마 인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어려서 그렇게 보였던 거였나봐요. 지금은 엄마도 저도 서로 의지 많이 하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거의 매주 장도 같이 보고요. 요리를 너무 잘하시고 해 주시는 걸 좋아하셔서 매 끼니 먹고 싶은걸 다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매일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으로 저를 늘 양육해 주십니다.

9. 나는 효녀다 or 아니다. 에 답해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전 아직 효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 엄마 아빠께 해 드린 게 없어서요. 열심히 해서 물질적 정신적 양면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10.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을 칭찬해 주세요. 남녀노소 상관 없어요.

장원준 학생을 칭찬합니다! 원준이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고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지금 학생회에서 맡은 사역과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는걸 보니 제가 더 뿌듯하고 기특해 보이는건 저만 그런가요 ~? 앞으로도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 하길 바랍니다.

11. 기도와 바램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해요. 성도님은 몇 살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며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이고 어떤 결혼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만날 때부터 이것저것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돌아보고 배려하며 어린 아이를 좋아 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결혼 시기는 딱 언제다 라고 정해두지는 않았구요. 제가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목표 했던걸 다 이룬 후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2살 안으로는 할겁니다 •.~

자녀는 저희 가정처럼 딸 둘 아들 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하율이 소현이 언니 이삭이 오빠 가정처럼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사모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가지길 조심스럽게 소망합니다.

12. 교회에 초 중 고등학교 동생들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 하고 있어요. 힘을 줄 수 있는 응원 메시지 부탁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것도 하고 싶은것도 많을텐데 공부 하느라, 학교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중학교는 어디갈지 고등학교는 어디갈지 대학교는 어딜 가야할지 거길 갈 수 있을지 가서 적응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걱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교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신앙 지키면서 조금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면 돼. 너희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거야 꼭!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박기숙 집사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서러운 눈물 기도로
밤을 지새울 때도
나는 주님의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 가루로 순종했던
사렘다 과부와 같은
헌신에도
나의 기름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도
나는 주님의 가지였습니다

과부의 두 렵돈처럼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도
주님은 잠잠 하셨습니다
그 때도 나는 주님의 가지였습니다

막막함의 끝자락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역전히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었던
바로 그 때에

웃으십시오!

장시는 어린이

유초등부 2학년에 달랑 한 명 밖에
없는 장시는 어린이가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장시는인데요. 저 친구 꼭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어요~~"

전도사님께서 감동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시은이에게서 전화를 받을 줄이야~ 하고 말입니다.

평소에 낮가림이 심해서 어른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던 시은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주일학교에서 미션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초대장 보내기였나 봅니다.

제일 친한 친구에게 초대장 전하고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네요. 참 감사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쩌면 복음을 전할 말문이 닫혀버린 이 때에 어린아이들은 용기를 내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시은이와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구마구 칭찬과 기도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자라며 하나님 은총을 받는 자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최대한 조용히 씻고 출근하는 새벽은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아내와 하람이의 자는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고,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운전대를 잡은 나는 약간의 피곤함을 느끼며 출근을 한다. 하지만 하람이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니 피로감이 풀리고 왠지 모르게 슬며시 미소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가장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나는 미화원으로 당진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특히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그리고 요즘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하람이를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좋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면 일터에서도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던 아들 하람이와 시간을 보낸다. 하람이가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놀아주고 있지만, 하람이는 그런 것들보다 안아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팔이 아프고 힘겹기도 하지만 하람이의 웃는 미소를 통해 힘든 것도 잊어버리면서 오후 시간을 다 보낸다. 아내는 아기의 이유식을 만들고 나는 아기와 놀아주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보 남편으로, 또 초보 아빠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쉬었다가 하람이가 제일 좋아하는 목욕을 해야 한다. 많은 아기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하람이도 물 속에서 놀수 있는 목욕을 좋아한다. 작은 손으로 참방참방 물을 치며 파르륵 파르륵 웃어주는 하람이의 모습을 보면 나도 웃음을 참을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잠시 더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시간이 되어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데 우리 하람이는 이때를 가장 행복해 하는 듯 하다.

하람이는 잠을 잘 때가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나도 잠 잘 때랑 음식을 먹을 때가 참으로 행복한데 우리 하람이도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람이를 보내주신 것은 크신 은혜이기에 날마다 감사드린다. 하람이를 통해 우리 부부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행복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린다.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초보 엄마이고 초보 아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키우리라 다짐하며 다 같이 잠자리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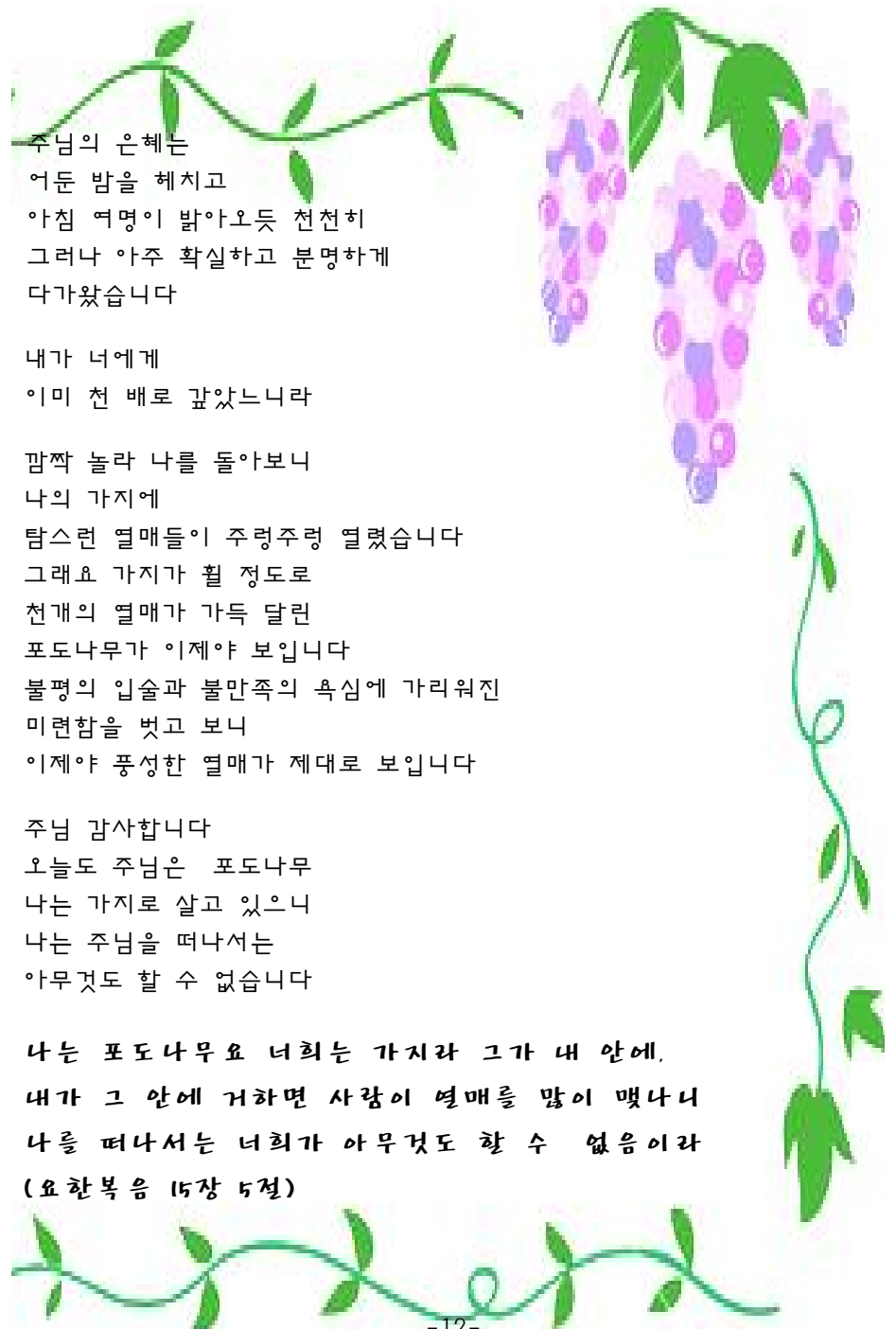


성경퍼즐

									1 시
							2 마		아
						3 대			
					4 리				
				5 단					
		6 나		만					
7 엘									

가로

- 예수님 어머니 이름은?
-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00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큰 무리 중을 쓴다.



주님의 은혜는
어둔 밤을 헤치고
아침 여명이 밝아오듯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천 배로 갚았느니라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니
나의 가지에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요 가지가 훨 정도로
천개의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나무가 이제야 보입니다
불평의 입술과 불만족의 욕심에 가리워진
미련함을 벗고 보니
이제야 풍성한 열매가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 살고 있으니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주일학교소식>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다가올 추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겨울 동물들은 월동 준비가 한참인 시기가 지금 이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2021년 동안 계획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며 10월 한달 주일학교 유초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즐겁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 열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모두가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둘째 주는 신문지 성경구절 찾기였습니다. 난이도를 상.중.하로하여 여러 장 중 3장을 뽑아 신문에서 한 글자씩 찾아 성경 구절을 만드는 건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아이들이 한글자 한글자 열심을 다해 찾아 성구를 완성해 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에 감동이었습니다.



셋째 주엔 ‘머리와 몸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수를 맞추기도 하고 글자를 맞추기도 하고 단어를 조합하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주는 성인지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표현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우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엔 생일파티와 전도용 간식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과 10월 통 털어 생일이 1명인지라 오롯이 한명을 위한 생일 파티~ 생일 주인공은 완전 신이 난 듯 합니다. 전도용 간식은 오밀조밀 간식 봉투에 간식을 담아 쪽지로 마음을 전하는 용도인데요. 우리 친구들~ 요즘은 손글씨보다는 카톡으로 주고받는 짧은 메세지가 익숙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작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니엘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 해주시고 아끼고 사랑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작고 어린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많은 기도와 관심 속에 그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릴레이

이영선 집사

조용한 이 밤을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들과의 성전 밭기를 통하여 성전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에 연우의 대학 진학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장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어려움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정현미 집사





4. 번호를 잘하면 번호가, 요리를 잘하면 000,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은 전도사님과 목사님.
5. 나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주려고 금과 은, 00을 잔뜩 가지고 갔어.
6.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엘리사 덕분에 병을 고친 시리아의 장군은?
7.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는 000 선지자인거 잊지 않았지?

세로

1. 나아만은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지?
2.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먼 길을 왔지만, 엘리사는 00도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만 전했다.
3. 엘리사를 000라고 놀렸던 사람들이 곰에게 혼쭐이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
4. 나아만 장군은 00 강에서 목욕을 하고 병이 나았단다.
5. 심하게 똥똥하면 00이라고 하지? 그런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똥똥하지 않으면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오히려 좋아.
6. 미국 항공우주국을 뜻하는 말. 영어로는 NASA!

<지난호 정답>

				향	유	고	래	
			선	수		등		
		회	장			학		
	소	개				교	가	
폭	풍						요	나
포								물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곳은 5곳



*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 essay.1/2 -



* 우리를 넘어 뜨리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다!

진심을 담은 말

옛날 고대 제국의 한 황제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가장 효율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그대들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 주시오. 짐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황제요?”

신하들은 똑똑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황제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주시오.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 진귀한 보석을 그대들에게 하사할 것이오.”



황제의 재촉에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황제를 향한 조심스러운 아첨이었습니다.

“폐하가 제국을 다스리시고 계속 곡식의 생산량이 늘고 있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폐하를 존경할 것입니다.”

“폐하의 위엄 덕분에 주변국의 침략이 줄어 제국은 항상 평화로우니 당연히 백성들은 폐하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 중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제는 그 신하에게 어서 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폐하는 지금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너무 많은 세금을 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면 모든 백성이 존경할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황제는 모든 신하들에게 귀해 보이는 큰 보석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마지막에 말한 신하의 것 외에 다른 신하들에게 하사한 보석은 전부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황제에게 묻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짐의 걸만 번드르르한 이야기만 했으니 짐도 걸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것을 준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거창한 칭찬이나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나 충고에 진심이 없다면 칭찬은 아첨이 되고, 충고는 단순한 트집 잡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걸만 번드르르한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칭찬이든 충고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중직자헌신예배 - 11월 7일 오후6시
2. 기관정기총회 - 11월 7일~14일
3. 교회대심방 - 11월 15일~29일, 각 구역별로 진행
4. 추수감사절예배 - 11월 21일 오전11시
5. 찬양대회 - 11월 21일 오후5시
6. 기관계획안 제출 - 11월 22일~28일

◎ 공지사항

1. 11월 생활실천표어 - 범사에 감사하라
2. 11월 신앙서적 -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최성은' 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시사용어 Briefing

세포마켓

SNS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을 일컫는 신조어. 일반 마켓에 비해 세포처럼 작고, 세포가 분열하듯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마켓이라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큐코노미

‘격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Quarantine’의 앞 글자 Q를 ‘Economy’(경제)를 합성한 말로 코로나 19에 따른 격리 및 봉쇄 조치 이후 변화된 경제상을 뜻하는 신조어. 즉,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격리 후 전망되는 경제의 변화를 나타낸다.

체크슈머

제품 구매 이전 성분, 원재료, 효능, 리뷰까지 꼼꼼히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하는 똑똑한 소비자를 말하는 신조어. 체크슈머는 제품의 홍보성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직접 제품의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다.

퍼플잡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 방식을 말하는 신조어.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과 일을 뜻하는 파란색이 혼합한 보라색처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팬데믹

‘소비하다(spend)’와 ‘전염병 대유행(pandemic)’의 합성어로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벌어진 대중의 과소비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행이나 외식 관련 소비는 줄어든 반면 배달음식 주문이나, 인테리어 용품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비유한 것이다.

도마(Tomas) 뜻 : 쌍둥이



12제자의 한 사람(마 10:3, 막3:18 눅 6:15).
요한복음에는 디두모란 이름으로 쓰여졌다(요 11:16,20:24,21:2). 주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다가 그 못 자리를 보고 믿었다(요 20:24).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 라고도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도마는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방문하시려고 할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반대에 맞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선언할 만큼 담대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땅에 간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행위였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어떠한 난관이나 생명의 위험도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하는 도마의 마음은 사지에라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확고한 도마의 헌신된 마음은 현실적인 데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신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서는 죽음마저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같이 죽기를 작정한 도마의 비장한 결심은 인간적인 생각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마의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도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그 후 예수님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던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도마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의 고트머리에서 회한과 의혹에 잠겨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던 날 도마는 성령충만함을 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깊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일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깊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빅 되신 주님 경배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누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